

## 평균 이상 효과에서 문화차의 발생 조건과 설명 기제\*

이 종 택†

동양미래대학교

본 연구는 평균 이상 효과(자신을 평균보다 더 낮다고 간주하는 경향)에서 문화적 차이의 발생 조건을 탐구하고, 그 기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동아시아 문화권을 대표하여 한국인을, 그리고 서양 문화권을 대표하여 한국 거주 서구인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연구 1에서 연구자는 평균 이상 효과의 크기에서 한국인과 서구인 사이에 문화적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전반적으로 한국인들이 서구인들에 비하여 더 낮은 수준의 평균 이상 효과를 보였으나, 긍정적 특성에서는 한국인들도 서구인들처럼 상당한 크기의 평균 이상 효과를 보였다. 부정적 특성에서는 2010년 자료에서 한국인들이 평균 이상 효과를 보이지 않았던 반면에, 2014년 자료에서 약간의 평균 이상 효과를 보였다. 이것은 4년이 지나면서 한국인들이 더욱 서구화되고 있다는 지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부정적 특성에서 한국인들이 평균 이상 효과를 보이지 않거나 적게 보이는 근거의 하나로 겸손 규범을 고려해 보았다. 연구 2에서 직접적으로 겸손 동기를 부각시키면 평균 이상 효과가 낮아지는지를 실험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높이는 겸손 동기를 조작하면, 특히 부정적 특성에서 평균 이상 효과가 사라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것은 서구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이 발견사실은 한국과 같은 동양 문화권에서는 자신의 단점을 찾아서 개선함으로써 자신을 향상시키려는 동기가 작용했기 때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 결과의 의의 및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평균 이상 효과, 문화차, 겸손규범, 부정적 특성, 자기 향상 동기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5C-B00564).

이 논문의 연구 1의 일부 자료는 Lee(2012)의 연구에서 중단분석을 위하여 재활용되었음.

† 교신저자: 이종택, 동양미래대학교 교양과, (152-714)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45

Tel : 02-2610-1872

서구에서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을 보통보다 더욱 긍정적으로 또는 관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긍정성 편향(positivity bias; Sears, 1983) 또는 관대성 효과(leniency effect; Bruner & Taguiri, 1954)는 사람들이 좋은 일이나 맑은 날씨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긍정성 편향은 자신과 관련될 때 더욱 극단적이 되며 심지어 착각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비현실적일 만큼 긍정적인 방식으로 간주한다(Brown, 1998, and Taylor & Brown, 1988). 자신에 대한 이러한 비현실적 평가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본보기가 평균 이상 효과이다(the better-than-average effect; Alicke, Klotz, Breitenbecher, Yurak, & Vredenburg, 1995). 비록 편향의 강도가 속성에 따라 다를지라도 대부분의 서구인들은 사실상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속성에서 자신이 평균 이상이라고 믿는다(Alicke, 1985; Brown, 1986; Campbell, 1986; Cross, 1977; Dunning, Meyerowitz, & Holzberg, 1989; Felson, 1981; Gilovich, 1983; Svenson, 1981). Gilovich(1991)는 이 편향을 우브곤 호수 효과(the Lake Wobegone effect)라고 부르며, 여자들은 튼튼하고 남자들은 미남이고 모든 아이들은 평균 이상이라는 가상의 우브곤 호수와 같은 장소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신이 타인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자기고양 현상은 자신이 객관적 실제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기준을 확인하기 어려워 평균보다 더 낫다는 방식으로 측정된다.

한때 이 평균 이상 효과는 문화보편적 현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최근까지도 Sedikides와 같은 일단의 학자들은 자기고양 현상이 범문화적 현상이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 설령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그 문화권에서 중요하게 간주하는 요인들에서는 자기고양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실정이다(Cai, Sedikides, Gaertner, Wang, Carvallo, Xu, O'Mara, & Jackson, 2011; Gaertner, Sedikides, & Chang, 2008; Sedikides, Gaertner, & Toguchi, 2003; Sedikides, Gaertner, & Vevea, 2005;

Sedikides & Gebauer, 2010; O'Mara, Gaertner, Sedikides, Zhou, & Liu, 2012).

그러나 2014년 현재까지 지속된 문화 심리학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서 구체적으로는 평균 이상 효과의 측면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자기고양 편향(self-serving biases)의 측면에서 보편성이 도전을 받아 의문시되고 있다(Chen, Bond, Chan, & Buchtel, 2009; Church, Katigbak, Mazuerea Arias, Rincon, Vargas-Flores, Ibanez-Reyes, Wang, Alvarez, Wang, & Ortiz, 2014; Heine & Lehman, 1995, 1997, 1999; Heine, Kitayama, Lehman, Takata, Leung, & Matsumoto, 2001; Heine & Hamamura, 2007; Heine, Lehman, Markus, & Kitayama, 1999; Kitayama & Uchida, 2003; Lee, 2012; Markus, Matsumoto, & Norasakkunkit, 1997; Markus & Kitayama, 1991a, 1991b). 예컨대, Markus와 Kitayama(1991b)는 미국인 학생들과 달리 일본인 학생들은 평균 이상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지적 능력, 성격 특성 및 육상 능력과 같은 영역에서 “당신보다 더 나은 당신 동료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라는 질문에 미국인 참가자들은 동료들 중 약 30%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라고 답했다(즉, 20% 편향). 이에 반하여 일본인 참가자들은 동료들 중 약 50%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라고 추정했다(즉, 편향 없음). 대단히 흥미롭게도 일본인들은 의존성 속성(예, 의존성, 정체성) 뿐만 아니라 일본 문화에 특히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호의존성 속성(예, 공감, 배려)의 측면에서 자신들을 평가할 때조차도 평균이라고 간주하였다. 또한 비현실적 낙관주의(즉, 자신의 미래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장밋빛이라고 믿는 것)가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더 약하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실제로 아시아인과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종종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비현실적 비관주의를 보이기도 하였다(Chang, 1996; Heine & Lehman, 1995). 아시아인들은 서구인들에 비하여 부정적인 자기 관련 정보를 기꺼이 수용하려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Heine, Kitayama, Lehman, 2001). 더 세계적 수준에서 아

시아인들의 자긍심 점수는 서구인들에 비하여 더 낮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발견되었다(Heine et al., 1997; Church et al., 2014). 중요한 점은 자기 고양 편향에서 나타난 모든 이러한 문화차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며, 상이한 자기 제시 전략 때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Heine, Takata, & Lehman, 2000).

그래서 평균 이상 효과가 그 자체로 범문화적 자기고양 현상의 일종으로 여겨지든 아니든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보인다. 최근 실시된 연구에서도 평균 이상 효과의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인들은 다른 특징을 보였다. 한국인들도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긍정적 형용사 특성에서는 평균 이상 효과를 보였지만, 부정적 형용사 특성에서는 평균 이상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 이것은 또한 같은 동아시아인지만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일본인들과는 다른 특징이다.

#### 특성가(Trait Valence)와 평균 이상 효과

본 논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특성가(trait valence)라는 개념을 알 필요가 있다. 특성가란 긍정적인 특성을 지닌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자신에 관한 긍정적 특성을 주장하는 것은 부정적 특성을 부정하는 것과 논리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내가 정직하다는 진술은 또한 내가 부정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 진술이 심리적으로는 다를 수도 있다. 실제로 몇몇 연구들은 긍정적인 특성을 주장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을 부정하는 것보다 쉽다는 것을 보여주었다(Brewer & Reeder, 1979; Jones & Davis, 1965; Rothbart & Park, 1986). 또한 Dunning과 동료들(Dunning, Meyerowitz, & Holzberg, 1989)은 어떤 특성이 애매할수록 자기 고양 편향이 발생할 확률이 더 증가함을 밝혀냈다. 특히 성향에 대한 자의적 정의로 사람들은 부정적 특성보다 긍

정적 특성을 획득하는 것이 더 쉽게 여긴다. Gidron, Koehler 및 Tversky(1993)는 긍정적 특성이 부정적 특성보다 더 느슨하게(예컨대, 애매하게) 정의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것은 부정적 특성보다 긍정적 특성에 더 자의적인 정의를 내리기 쉽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를 들면, 한 개인의 단 한 번의 속임수 행동도 그 사람이 부정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충분하지만, 한 번의 정직한 행동이 그 사람의 정직함을 보여주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까지의 발견사실은 자기 고양 경향이 미국인들보다 동아시아인들 사이에서 더 약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비록 아시아인들이 특히 중요한 특성(trait)에서 더욱 자기 비판적일지라도(Heine & Lehman, 1999; Kitayama, Markus, Matsumoto, & Norasakkunkit, 1997), 위에서 언급한 연구들은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주로 관심을 기울인 것들이다. 그래서 그 연구들은 그런 차이의 변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 평균 이상 효과에서 문화적 변동의 정도를 이해하는 것은 문화와 자아에 관한 상호작용의 이해에 한 발 더 다가서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적 차이의 근원은 무엇일까? 동양인의 자아관은 공자 사상에 의하여 영향 받은 바 크다. 특히 유교 사상은 위계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그 역할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내집단 성원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개인들은 자신의 일에 숙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녀야 한다. 유교 전통의 문화에 속하는 사람들은 높은 성취동기를 지녀서 부정적 측면과 자기 향상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사건에 특히 민감하다(Heine et al., 2001). 또한 자신을 낮추거나 상대방을 높이는 겸손을 보이는 것도 위계를 중시하는 동양인의 생활의 한 단면이다. 그래서 자기 고양 동기를 지닌 서구인들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성격 특성과 관계없이 평균 이상 효과를 보이겠지만, 자신의 단점을 고치려는 동기, 즉

자기 향상 동기를 지닌 한국인들은 부정적 특성에서 그런 효과를 거의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도 한국인들은 2010년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 긍정적 특성에서 서양인들과 유사하게 평균 이상 효과를 보였지만, 부정적 특성에서는 그 효과를 거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사실은 한국인들이 남들과 유사한 정도의 부정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으며, 동시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향상시켜서 그런 부정적 특성을 줄여야 한다는 유교적 사상을 표출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실제로 몇몇 연구자들은 특성가(trait valence)와 평균 이상 효과가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Alicke, 1985; Brown, 1986; Rothbart & Park, 1986). 즉, 평균 이상 효과는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보다 바람직한 특성에 대하여 더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에 사람들이 긍정 대 부정 특성을 수용하는 경향성에 문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려는 연구가 있었다. 예를 들면, Lalwani, Shavitt 및 Johnson(2006)은 Paulhus 기만 척도(Paulhus, 1984)로 측정하였을 때 미국인 응답자들이 싱가포르 출신 응답자들에 비하여 자기 기만적 고양(self-deceptive enhancement, SDE)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긍정적 특성 수용) 인상관리(impression management, IM)에서는 더 낮은 점수를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해 냈다. 마찬가지로 유럽계 미국인 응답자들은 한국계 미국인들에 비하여 자기 기만적 고양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인상관리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여기서 자기 기만적 자기 고양(SDE)이란 긍정적 측면으로 자신을 간주하고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과장되게 평가하는 경향을 말하고, 인상관리(IM)란 사람들이 의식·무의식적으로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목적지향적인 과정을 지칭한다. 실제로, Kim, Chiu, Peng, Cai 및 Tov(2010)도 비슷한 효과를 발견하였다. 집단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명시적 비교에 관한 최근의 연구(Lee, 2012)에서

도 한국과 서구의 문화적 차이가 발생함을 보여주었다. 다른 연구와 앞의 연구(Lee, 2012)를 대비하면, 이전 연구들(Lalwani et al., 2006 and Kim et al., 2010)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 없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거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행동을 보이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 연구 1

연구 1의 주요 목적은 평균 이상 효과에서 문화차가 발생하는 조건과 4년의 경과 후에도 한국에서 동일한 양상이 유지되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최근 한국이 급격히 서구화되고 동시에 개인주의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이선경, 팔로마 베나비데스, 허용희 및 박선웅, 2014), 과연 그러한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2010년 수집한 자료와 4년 후인 2014년 수집한 자료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추이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인들과 서구인들 사이의 문화차에 대한 연구들은 비교적 풍부한 반면에(Heine & Hamamura, 2007), 그에 관한 한국인들의 자료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어서 본 연구가 한국인 자료의 활용을 통한 문화심리학적 지식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2010년 자료 중 한국인 자료는 심리학개론 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있던 4년제 대학교 학부생 63명과 2년제 대학교 학부생 77명으로부터 학점 이수의 조건으로 수집하였으며, 미국인 자료는 4년제 대학 미국인 83명의 수강자들로부터 5000원의 식사 쿠폰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집하였다. 2010년 자료에서 4년제 대학교와 2년제 대

학교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고, 성별 차이도 없었다. 그래서 2014년의 한국인 자료는 2년제 대학교 학부생 70학생으로부터 학점이 수의 조건으로 수집하였다. 외국인에 대한 2014년 자료는 4년제 대학 000에 재학중인 외국인들 24명을 대상으로 5000원의 연구 사례비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집하였다. 2014년 자료에서 성별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절차**

연구자는 참가자들에게 본 연구가 자신들을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참가자들은 29개 성격특성 형용사(11개의 긍정 형용사와 18개의 부정 형용사)에 대하여 자기 학교의 동일한 학생들과 비교하여 자신을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A 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시문은 다음과 같다:

당신은 같은 해 입학한 같은 성별의 A 대학교 학생 100명을 무작위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 자신도 이 100명 중 한 명이라고 가정하십시오.

대학이나 대상자에 따라 적절하게 대학명이나 언어(예,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어)가 바뀌어 사용되었다. 참가자는 긍정적 특성과 관련하여(창의적인, 시간을 잘 지키는, 예의바른, 성숙한, 신뢰로운, 성실한, 정직한, 지적인, 따뜻한, 친절함, 행복한) 나머지 99명 중에서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몇 명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부정적 특성과 관련하여(비창의적인,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무례한, 미숙한, 신뢰할 수 없는, 불성실한, 부정직한, 무지한, 차가운, 불친절한, 불행한, 게으른, 비합리적인, 기만적인, 인색한, 무책임한, 이기적인, 인내심 없는) 자신보다 더 못한 사람이 몇 명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에 답하였다.

**결과 및 논의**

**평균 이상 효과**

평균 이상 효과의 강도를 나타내는 편향 통계치를 구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긍정 특성에서는 50(비편향 백분위 추정치)에서 각 개인의 추정치를 뺐다:

$$\text{편향치}_+ = 50 - \text{추정치.}$$

부정 특성의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자신보다 더 못한지를 물었기 때문에 각 개인의 추정치에서 50을 뺐다:

$$\text{편향치}_- = \text{추정치} - 50.$$

이 편향치가 양의 값을 가지는 정도에 따라 평균 이상 효과는 그 만큼 더 커지게 된다. 편향 점수가 0점이 나오면 자신이 100명 중 한 가운데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균 이상효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평균 이상 효과의 크기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2014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인들은 여전히 미국인들에 비하여 더 낮은 평균 이상 효과를 보였고(12.78 대 8.87),  $F(1, 91)=3.0, p = .08$ , 특성가의 주효과가 한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한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서구인들에 비하여 아직도 자기고양 편향의 정도가 더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10년 자료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 2014년 자료에서도 서구인과 한국인 사이의 특성가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했다,  $F(2, 91)=3.81, p < .05, \eta^2 = .08$ . 즉, 한국인들이 긍정적인 형용사 특성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서구인들과 마찬가지로 평균 이상 효과를 보이지만, 부정적인 특성에서는 그 정도가 줄어들었다(부정적 형용사에 외국인 평균 11.26 대 한국인 평균 3.69). 또한 기존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들도 긍정적 특성에서 부정적 특성보다 더 큰 평균 이상 효과를 보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14.30 대 11.26),  $t(23)=1.72, p =.09$ . 한국인의 경우

표 1. 편향 통계치: 한국인/서구인들의 평균 이상 효과의 크기

	서구인(2014년)	한국인(2010년)	한국인(2014년)
긍정적 특성			
창의적인	15.25	11.63	10.50
시간을 잘 지키는	0.92	16.06	18.62
예의바른	21.92	17.62	14.87
성숙한	13.96	10.31	12.09
신뢰로운	17.83	16.74	24.16
성실한	20.75	9.96	11.61
정직한	21.17	17.03	16.36
지적인	16.50	3.90	10.51
따뜻한	2.21	18.80	12.34
친절한	18.42	17.06	13.36
행복한	8.41 (M=14.30)	16.82 (M=14.18)	10.19 (M=14.05)
부정적 특성 (긍정적 특성의 반의어)			
비창의적인	9.75	1.18	1.83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1.63	3.67	8.33
무례한	17.00	3.26	6.10
미숙한	8.71	-6.74	4.57
신뢰할 수 없는	13.13	3.09	11.67
불성실한	18.63	-2.67	3.37
부정직한	20.83	3.80	5.76
무지한	14.42	-7.61	2.11
차가운	14.13	-1.96	-2.97
불친절한	18.88	4.48	5.47
불행한	2.17 (M=11.38)	-2.17 (M=-0.15)	1.26 (M=4.32)
기타 부정적 특성			
게으른	-2.92	-5.20	3.14
비합리적인	11.29	-3.64	0.01
기만적인	19.83	0.57	-2.11
인색한	17.54	4.23	0.19
무책임한	6.42	0.00	6.23
이기적인	9.13	4.35	3.69
인내심 없는	2.13 (M=9.06)	2.15 (M=0.35)	7.74 (M=2.70)
평균	12.78	5.41	8.87

2014년 자료에서도 명백하게 긍정적 특성에서 부정적 특성에서보다 더 큰 평균이상 효과를 보였다, (14.05 대 3.69),  $F(1, 69)=34.28, p < .001, \eta^2 = .33$ .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한국인들이 부정적 특성에 대하여 자신도 남들 정도의 부정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정적 특성에서 조금이라도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정적 특성에 한하여 2010년 자료와 2014년 자료를 대비하여 보았다. 그 결과, 부정적 특성에서 약간의 평균이상 효과가 나타나, (.01 대 3.39),  $t(208)=-1.95, p = .05$ , 한국인들도 부정적 특성에서 조금은 자기고양의 경향을 보이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아직 평균의 크기 작아 한국인들이 부정적 특성에서 평균 이상 효과를 눈에 띄일 만큼 강하게 보인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이 결과는 기존의 연구(이선경 등, 2014)에서 주장하듯이 한국인들이 점차적으로 개인주의화되면서 긍정적 특성을 과장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 특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도 자기고양 편향을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인들이 서구인들에 비하여 아직도 전체적으로 자기고양 편향을 적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전에 비하여 점진적으로 자기고양 편향이 커지는 추세를 보이며, 부정적 특성에서도 미미하나마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인들이 자신의 부정적 특성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려는 동기 못지않게 서구적 자기고양 동기를 더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여전히 동양적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겸손규범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거기에서 벗어나 보다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이려는 모습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겸손규범을 직접적으로 조작하면 그 사실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연구 2를 수행하였다.

## 연구 2

연구 2는 겸손 동기가 한국인의 평균 이상 효과의 문화차의 한 가지 원인일 가능성을 탐구해 보고자 실시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Chen 등(2009)이 개발한 겸손 척도를 사용하여 평균 이상 효과에서 한국인과 미국인의 문화적 차이를 탐구해 본 결과, 타인 고양 요인이 문화적 차이와 관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 Chen 등의 겸손 척도에서는 겸손의 요인으로 3가지를 구분하였는데, 각각 자기 비하(self-effacement), 타인 고양(other-enhancement) 및 주목끌기의 회피(avoidance of attention-seeking)가 그것이다. 연구 2에서는 Anderson, Lepper 및 Ross(1980)의 신념보존현상(belief perseverance) 연구 패러다임을 원용하여 타인 고양 동기를 직접적으로 조작함으로써 문화적 차이의 발생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만약 겸손 요인이 한국인의 낮은 평균 이상 효과의 문화차의 원인 중 하나라면 겸손 동기를 부각시킬수록 평균 이상 효과가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차이는 긍정적 특성보다 부정적 특성에서 커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의 연구들이 시사하듯이 동양인들은 자신의 부정적 특성을 보다 솔직히 인정하면서 자신을 개선시키고 향상시키려는 동기가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겸손동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부정적 특성에서 평균 이상 효과를 적게 보이거나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 서구인에게 겸손 동기를 부각시키면 한국인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야 할 것이다. 즉, 동양인보다 자기고양적인 서구인들도 겸손 동기가 부각되면 부정적 특성에서 평균 이상 효과를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이다. 연구2는 이러한 두 가지를 가설을 검증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 방 법

### 연구대상

실험 참가자는 한국인의 경우 2014년 7월 현재 2년제 대학교 학부생 112명이었으며 학점이 수의 조건으로 연구에 참가하였다. 서구인의 경우 2014년 현재 4년제 000에 재학중인 학생 48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통제집단에 배정되었던 한국인과 서구인 참가자들은 연구 1의 2014년 대상자와 동일하다.

### 절차

실험집단에 배정된 참가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문을 읽고 작성하게 하였다. 외국인의 경우 지시문을 영어로 번역한 다음, 다시 원어를 통하여 점검을 거친 동일한 의미의 지시문을 사용하였다.

겸손이란 상대방을 높이고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겸손은 상대를 높이고 그의 장점을 칭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3가지만 곰곰이 생각하여 적어 보세요.

실험집단 참가자들은 이 지시문에 따라 각각 3가지 이유를 적은 후에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전형적 평균 이상 효과를 측정하는 질문에 답하게 하였다. 이 절차는 타인을 높이는 것이 겸손의 특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봄으로써 겸손에 대한 신념을 형성하고 유지시키려는 의도로 수행되었다. Anderson 등(1980)의 연구에 의하면 소방관의 소질의 하나로 용감함을 생각해 본 사람들은 나중에 용감함이 소방관의 자질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제시하여도 일단 만들어진 신념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도 그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

였다. 나머지 절차는 연구 1과 동일하여 총 29개의 긍정과 부정 형용사 특성에 대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 결과 및 논의

평균 이상 효과의 크기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인과 외국인 참가자를 전체로 보면, 예언된 바와 일치하게 실험집단의 참가자들이 더 적은 평균 이상 효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9.87 대 5.81),  $F(1, 156)=2.50, p =.11$ . 더욱 중요한 것은 긍정적 특성에서보다 부정적 특성에서 평균 이상 효과가 실험집단에서 더욱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긍정 특성 11.17 대 부정 특성 .45),  $F(2, 66)=30.61, p <.001, \eta^2 = .49$ . 한국인과 서구인의 조건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발견사실은 모두에게 공통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 결과는 겸손동기가 부각되면 전반적으로 자기 고양 동기가 줄어들어 평균 이상 효과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래 예상했던 것처럼 한국인들이 부정적 특성에서 겸손동기를 고양시키면 평균 이상 효과가 더 낮아지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감소의 경향성만 확인할 수 있었다, (3.69 대 -.02),  $F(1, 110)=2.48, p =.11$ . 그리고 긍정적 특성에서도 비슷한 감소 경향성이 나타났다, (14.05 대 10.73),  $F(1, 110)=2.14, p =.15$ . 이 결과만 놓고 본다면, 부정적 특성에서 겸손동기 조작으로 평균 이상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적으로만 유효해 보인다. 아마 원래부터 부정적 특성에서 한국인들이 평균 이상 효과를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 설혹 보인다고 해도 미미한 수준이기에 - 평균 이상 효과가 더 이상 줄어들기 힘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서구인 자료의 분석 결과는 고무적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험조건에서 전반



표 2. 편향 통계치: 한국인과 서구인 합산의 평균 이상 효과의 크기

	실험집단(N=66)	통제집단(N=94)
긍정적 특성		
창의적인	7.74	11.71
시간을 잘 지키는	12.29	14.10
예의바른	14.08	16.67
성숙한	12.92	12.56
신뢰로운	19.70	22.54
성실한	11.32	13.95
정직한	13.71	17.58
지적인	2.70	12.04
따뜻한	7.68	9.76
친절한	11.24	14.65
행복한	9.45(M=11.17)	9.73(M=14.12)
부정적 특성 (긍정적 특성의 반의어)		
비창의적인	-5.67	3.85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6.21	6.62
무례한	1.79	8.88
미숙한	2.33	5.63
신뢰할 수 없는	9.17	12.04
불성실한	4.26	7.27
부정직한	0.65	9.61
무지한	-1.29	5.26
차가운	-1.42	1.39
불친절한	-0.62	8.89
불행한	-6.67(M=0.79)	1.49(M=6.45)
기타 부정적 특성		
게으른	2.97	1.60
비합리적인	-1.32	2.89
기만적인	-1.64	3.49
인색한	-2.64	4.62
무책임한	4.36	6.28
이기적인	1.11	5.07
인내심 없는	-2.39 (M=0.06)	6.31 (M=4.32)
평균	5.81	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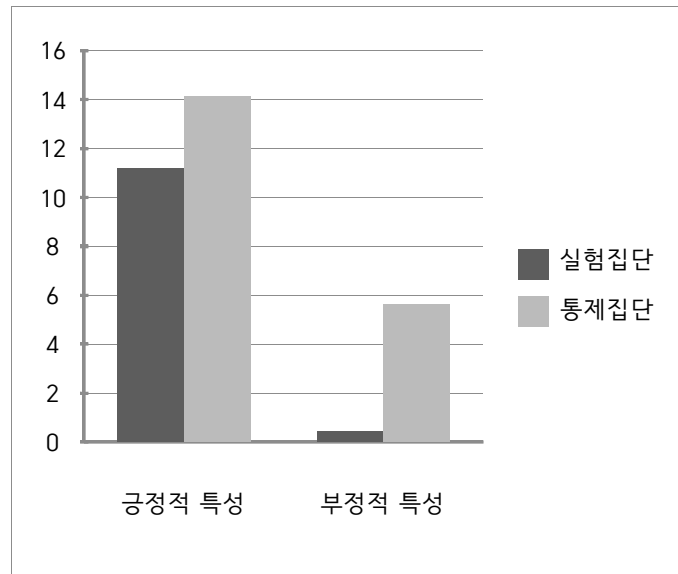


그림 1. 집단 간 평균 이상 효과의 크기

적으로 낮은 평균 이상 효과를 보인 점은 한국인 자료와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명백하게 부정적 특성의 형용사에서만 유의미한 평균 이상 효과의 감소가 있었다, (11.93 대 1.28),  $F(2, 22)=16.84, p < 0.01, \eta^2 = .61$ . 그렇지만, 긍정적 형용사 특성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14.30 대 11.92). 이것은 2(검손) X 2(특성)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F(2, 22)=16.84, p < .05, \eta^2 = .14$ . 이 결과는 서구인도 검손동기가 고양되면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형용사 특성에서 평균이상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실험집단에서 거의 평균 이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현상은 검손동기가 부정적 특성에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결과들은 표 2와 그림 1과 같다.

연구 2의 결과, 한국인들이 서구인들에 비하여 자기 고양 편향의 정도가 낮은 것은 부분적으로 검손 동기가 작용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그렇지만 한국인의 자료에서 통계적 유의미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점은 검손 이외에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외국인의 자료에서 부정적 특성과 검손 동기의 관계를 더 분명히 파악할 수 있었다.

### 종합논의

연구 1과 2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고양 편향의 지표인 평균 이상 효과는 한국인들이 여전히 서구인들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긍정적인 특성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부정적 특성에서 훨씬 더 낮다. 이것은 명백히 문화적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둘째, 4년 전과 달리 2014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국인들의 자기 고양 편향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긍정적 특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자기 고양 편향이 증가하지 않았으나 부정적인 특성에서는 상대적으로 증가한 편이다. 이것은 한국인들이 최근 급

격히 개인주의화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이선경 등, 2014)와 일맥상통하는 사실이다. 셋째, 상대방을 높이는 방식으로(타인 고양) 겸손 동기를 조작하였을 때 자기 고양 편향, 즉 평균 이상 효과의 크기가 줄어들었다. 이 경우 긍정적 특성보다 부정적 특성에서 더욱 줄어들었다. 즉, 긍정적 요인에서는 겸손 규범이 크게 작용하지 않은 반면에 부정적 요인에서는 크게 작용하였다. 이 경향은 한국인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더욱 뚜렷하였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한국인들이 부정적 특성에서 평균 이상 효과를 잘 나타내지 않는 현상은 부분적으로 겸손 동기 때문이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긍정이든 부정이든 모든 종류의 특성에서 평균 이상 효과를 보이는 서구인(특히 미국인), 다양한 특성에서도 평균 이상 효과를 보이지 않는 일본인(다만, 그들도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에서 보이는 경우는 함), 이에 반하여 긍정 특성에서는 서구인과 마찬가지로 평균 이상 효과를 보이지만 부정 특성에서는 그렇지 않은 한국인의 차이를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하는 것이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우선 기존 연구를 참조하여 겸손 동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왜 겸손 동기를 일차적으로 고려하였는가 하면, 기존 연구에서 겸손 규범이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여 한국인의 평균 이상 효과를 낮추는 경우가 있다( )는 점을 착안하였다.

그렇지만 한국인이 오로지 겸손 규범 때문에 평균 이상 효과를 적게 보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대안적 설명개념으로 자기 제시 동기를 들 수 있다. 자기를 낮추려는 겸손 동기를 가정하지 않더라도 그 상황에 맞게 자기 자신을 내 보이려는 자기 제시 동기 때문에 평균 이상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잘난 체 튀는 것을 싫어하는 분위기라면 아무리 내가 남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더라도 표현이나 행동으로 옹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직관적으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자기 고양이니, 그 반대 개념으로 자기 겸손, 자기 비하 동기를 가정하기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측면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결책은 조금 더 연구의 누적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한편, 논리적으로 긍정적 특성의 형용사를 바탕으로 평균 이상 효과를 측정하거나 부정적 특성의 형용사를 통하여 측정하거나 결과는 일관되어야 할 것이다. 즉, 당신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라고 물었을 때 대단히 유능하다고 응답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라고 물었을 때는 전혀 무능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응답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인을 대상으로 질문하였을 때도 긍정적 특성에서 부정적 특성보다 평균 이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Brewer & Reeder, 1979; Gidron, Koehler & Tversky, 1993; Jones & Davis, 1965; Rothbart & Park, 1986). 이 현상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긍정적 특성은 애매한 반면 부정적 특성은 더욱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Dunning, Meyerowitz, & Holzberg, 1989).

그런데 한국인들을 비롯한 동양인들의 경우에 이와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잠정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인들은 오랫동안 공자의 유교 전통을 이어왔다. 유교 사상의 핵심은 절차탁마하여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자신을 수양하며, 마침내 자기를 향상시켜 사회의 바람직한 일원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 서구인, 특히 미국인들이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성공하고자 한다면, 전통적으로 동양인들은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또는 국가의 번영을 위하여 성공하고자 하였고 그렇지 못하였을 때 극심한 비난을 받고 심지어 목숨으로 갚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보다 필요한 것은 자신의 장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점을 찾아 그 집단이나 조직이 바라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양인들은 부정적 요소의 측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크게 우월

하지 않다고 해서 수치스럽게 여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과거보다 나은 사람으로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길 가능성이 크다. 겸손을 강조하는 유교의 전통에서 보아도 자신도 남들처럼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타인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등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긍정적 특성에 대한 한국인들의 자기 고양 편향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까? 이 점에서는 Sedikides 등(2008, 2010)의 범문화적 자기 고양 동기를 원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진화론의 견지에서 가장 우수한 종족이 살아남아야 하므로 자기 고양 동기는 가장 기초적 동기이고 인류 보편의 동기라고 주장한다. 집단에서 유능한 사람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상기하면, 자신의 유능함을 과장하는 것은 잘 적응하려는 인간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타당한 현상일 것이다. 더구나 실제로 유능한 사람이 자신이 유능하다고 여기는 것은 자기 고양이라 아니라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외관상 상반되는 주장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바로 문화적 영향을 감안하여 통합해 보는 것이다. 집단주의 문화의 성향이 강하면 겸손을 강조하고 개인의 개성이 상대적으로 무시되는 편이기 때문에 자기 고양 편향이 적게 나타날 것이고, 개인주의 문화의 성향이 강하면 가장 우수한 개인이 살아남을 것, 즉 성공할 것이기에 자기 고양 편향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집단주의 문화인 일본의 경우 긍정적 속성에서도 평균 이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고, 개인주의 문화인 미국의 경우 긍정적 속성이든 부정적 속성이든 관계없이 자신이 가장 잘났다고 여기는 자기 고양 편향이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비하면, 한국인의 경우 유교 전통이 부분적으로 해체되면서 서구 문화, 특히 미국식 기독교 문화가 확산되면서 과도기적 경향을 보인다고 잠정적으로 추정해 볼 여지가 있다. 그 때문에 단점

의 측면에서는 적극 개선하여 자신을 향상시키려는 유교적 전통이 남아 있고, 장점의 측면에서는 개인적 자질을 과장하여 자랑하고 싶어 한다고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진화론의 견지에서 보아도 결국 적응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단점을 해소하는 것이 자신의 적응력을 높이고, 따라서 생존가능성을 높이는 길이 될 여지도 있다. 만약 수영 실력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깨닫고 고쳐야 난파선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을 것이다. 즉, 생존에는 긍정적 요소 못지 않게 부정적 요소도 크게 작용한다. 독초를 감식하지 못하면 생존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남들보다 우수한 능력 못지않게 남들보다 모자라더라도 최소한의 능력이라도 있어야 생존력이 증대될 것이다. 동양의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서로의 단점을 잘 고쳐 공동의 생존 또는 집단의 생존이 중시되었다면, 그리스 상업주의 문화를 기원으로 한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Nisbett, 2004)에서는 뛰어난 개인의 생존이 그만큼 중시되었다고 추론한 여지가 있다.

한편, 최근 한국인들의 개인주의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한국인들의 특성도 변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한국인들이 예전보다 더 자기 고양 편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부정적 특성에서 더 이상 자기 겸손 특징을 보이지 않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이선경 등(2014)의 연구와 본 연구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전세계적으로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평균 이상 효과가 적게 나타나고,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크게 나타나며, 과도기적 문화에서는 긍정 속성에서는 나타나고 부정 속성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개연성이다. 이 다소 성급한 예측에 대한 보다 명확한 결론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더구나 본 연구의 함축은 잠정적 추정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연구참가자도 대학생에 국한되어 있으며, 더욱이 서구인 표본의 경우 한국에 거주한다는 점과 제한된 수 때문에 명쾌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풍부하고 다양한 표본에 대하여 개념적 반복 연구를 거쳐야 할 것이다. 문화연구의 맹점 중 하나가 문화라는 개념이 다소 모호하고 큰 개념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인류학자 생각하는 문화와 사회심리학자가 생각하는 문화의 개념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서구가 개인주의 문화라고 하지만, 하와이인들은 오히려 집단주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같은 동아시아인이라도 한국인과 일본인의 특성이 다르며, 한국인이라도 대단히 개인주의적인 특징을 지닌 사람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 사는 서구인은 순수한 서구인인가, 미국에 사는 동양인은 여전히 동양인 범주에 들어가는가 하는 문제는 명확히 답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물론 미국 거주 기간에 따라서 동양인의 특성이 달라진다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인의 특징을 보인다든지 하는 연구도 있기에 한국에 상당 기간 거주한다고 심리적 측면에서 한국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 연구의 장점 중 하나가 사회심리학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가 한국인의 고유한 특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심리학, 특히 문화심리학 연구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본 연구의 한계에 대하여 논의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일부만일 수밖에 없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한국인이라는 모집단에 적용시켰다는 점, 더구나 사용된 대학생 표본도 전국의 모든 대학교를 대표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 그리고 동일한 특성을 지닌 학생들을 반복측정하지 못한 점 등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개념적인 부분에서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겸손이란 자기가 알고 하는 반응이고, 자기고양은 자신이 모르고 하는 반응이다. 즉, 자기고양의 경우 자신이 정말로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나온 반응일 수 있어서 질적으로 겸손과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더욱 충실한 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이선경, 팔로마 베나비데스, 허용희 및 박선웅 (2014). 자기에 시대의 도래: 한국 대학생들의 자기에 성향 증가. 2014년 한국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 pp. 5-11.
- Alicke, M. D. (1985). Global self-evaluation as determined by the desirability and controllability of trait adjecti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621-1630.
- Alicke, M. D., Klotz, M. L., Breitenbecher, D. L., & Yurak, T. J. (1995). Personal contact, individuation, and the better-than-average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804-825.
- Anderson, C. A., Lepper, M. R., & Ross, L. (1980). The perseverance of social theories: The role of explanation in the persistence of discredited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1037-1049.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ond, M. H., Leung, K., & Wan, K. C. (1982). How does cultural collectivism operate? The impact of task and maintenance contributions on reward distribu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3, 186-200.
- Brewer, M. B., & Reeder, G. D. (1979). A schematic model of dispositional attribution in interpersonal perception. *Psychological Review*, 86, 61-79.
- Brown, J. D. (1986). Evaluation of self and others: Self-enhancement biases in social judgments. *Social Cognition*, 4, 353-376.
- Brown, J. D. (1998). *The self*. Boston: McGraw-Hill.
- Bruner, J. S., & Tagiuri, R. (1954). The perception

- of people. In G. Lindzey (Ed.),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2, pp. 634-654). Reading, MA: Addison-Wesley.
- Cai, H., Sedikides, C., Gaetner, L., Wang, C., Carvallo, M., Xu, Y., O'Mara, E. M., & Jackson, L. E. (2011). Tactical self-enhancement in China: Is modesty at the service of self-enhancement in East Asian culture?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2, 59-64.
- Cai, H., Sedikides, C., Gaetner, L., Wang, C., Carvallo, M., Xu, Y., O'Mara, & Jackson, L. E. (2011). Tactical Self-Enhancement in China: Is Modesty at the Service of Self-Enhancement in East Asian Culture?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2, 59-64
- Campbell, J. D. (1986). Similarity and uniqueness: The effects of attribute type, relevance,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esteem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281-294.
- Chang, E. C. (1996). Cultural differences in optimism, pessimism, and coping: Predictors of subsequent adjustment in Asian American and Caucasian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113-123.
- Chen, S. X., Bond, M. H., Chan, B., Tang, D., & Buchtel, E. E. (2009). Behavioral manifestations of modest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0, 603-626.
- Church, A. T., Katigbak, M. S., Mazuerea Arias, R., Rincon, B. C., Vargas-Flores, J. J., Ibanez-Reyes, J., Wang, L., Alvarez, J. M., Wang, C., & Ortiz, F. A. (2014). A four-culture study of self-enhancement and adjustment using the social relations model: Do alternative conceptualizations and indices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6, 997-1014.
- Colvin, C. R., & Block, J. (1994). Do positive illusion foster mental health? An examination of the Taylor and Brown form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6, 3-20.
- Costa, P. T. Jr. & McCrae, R. R. (1992).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NEO PI-R) and NEO Five-Factor Inventory(NEO-FFI)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Cross, P. (1977). Not can but will college teaching be improved? *New Directions for Higher Education*, 17, 1-15.
- Dunning, D., Meyerowitz, J. A., & Holzberg, A. D. (1989). Ambiguity and self-evaluation: The role of idiosyncratic trait definition in self-serving assessments of 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82-1090.
- Felson, R. B. (1981). Ambiguity and bias in the self-concep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4, 64-69.
- Gaetner, L., Sedikides, C., & Chang, K. (2008). On pancultural self-enhancement Well-adjusted Taiwanese self-enhance on personally valued trai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9, 463-477.
- Gidron, D., Koehler, D. J., & Tversky, A. (1993). Implicit quantification of personality trai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 594-604.
- Gilovich, T. (1983). Biased evaluation and persistence in gambl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110-1126.
- Gilovich, T. (1991). *How we know what isn't so: The fallibility of human reason in everyday life*. New York: Free Press.
- Gudykunst, W. B., Matsumoto, Y., Ting-Toomey, S., Nishida, T., Kim, K., & Heyman, S. (1996). The influences of cultural individualism-collectivism, self-construals, and individual values on communication styles across culture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2, 510-543.
- Heine, S. J., & Hamamura, T. (2007). In search of

- East Asian self-enhance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1, 1-24.
- Heine, S. J., & Lehman, D. R. (1995). Cultural variation in unrealistic optimism: Does the West feel more invulnerable than the Ea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95-607.
- Heine, S. J., & Lehman, D. R. (1997).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self-enhancement: An examination of group-serving bia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268-1283.
- Heine, S. J., & Lehman, D. R. (1999). Culture, self-discrepancies, and self-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915-925.
- Heine, S. J., Kitayama, S., & Lehman, D. R. (2001). Cultural differences in self-evaluation: Japanese readily accept negative self-relevant informa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2, 434-443.
- Heine, S. J., Kitayama, S., Lehman, D. R., Takata, T., Ide, E., Leung, C., & Matsumoto, H. (2001). Divergent consequences of success and failure in Japan and North America: An investigation of self-improving motivation and malleable sel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599-615.
- Heine, S. J., Lehman, D. R., Markus, H. R., & Kitayama, S. (1999). Is there a universal need for positive self-regard? *Psychological Review*, 106, 766-794.
- Heine, S. J., Takata, T., & Lehman, D. R. (2000). Beyond self-presentation: Evidence for self-criticism among Japanes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442-451.
- Ito, T. A., Larsen, J. T., Smith, N. K., Cacioppo, J. T. (1998). Negative information weighs more heavily on the brain: The negativity bias in evaluative categoriz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887-900.
- Jones, E. E., & Davis, K. E. (1965). From acts to dispositions: The attribution process in person perceptio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 219-266.
- Kim, Y. H., Chiu, C. Y., Peng, S., Cai, H., & Tov, W. (2010). Explaining East-West differences in the likelihood of making favorable self-evaluations: The role of evaluation apprehension and directness of express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0, 62-75.
- Kitayama, S., & Karasawa, M. (1995). Self: A cultural psychological perspective. *Japanes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5, 113-165.
- Kitayama, S., & Uchida, Y. (2003). Explicit self-criticism and implicit self-regard: Evaluating self and friend in two cultur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9, 476-482.
- Kitayama, S., Markus, H. R., Matsumoto, H., & Norasakkunkit, V. (1997). Individual and collective process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Self-enhanc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self-criticism in Ja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245-1267.
- Lalwani, A. K., Shavitt, S., & Johnson, T. (2006). What is the relation between cultural orientation and socially desirable respond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 165-178.
- Lee, J. (2012). Trait desirability and cultural difference in the better-than-average effect.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 261-272.
- Lee, J. W., Yates, J. F., Shinotsuka, H., Singh, R., Onglatco, M. L. U., Yen, N. S., Gupta, M., & Bhatnagar, D. (1995). Cross-national differences in overconfidence. *Asian Journal of Psychology*, 1, 63-69.
- Markus, H. R., & Kitayama, S. (1991a).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rkus, H. R., & Kitayama, S. (1991b). Cultural

- variation in self-concept. In G. R. Goethals & J. Strauss (Eds.), *The self: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pp. 18-48). New York: Springer-Verlag.
- Maslach, C. (1974). Social and personal bases of individ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9, 411-425.
- Matlin, M., & Stang, D., (1978). *The Pollyanna principle: Selectivity in language, memory, and thought*. Cambridge, MA: Schenkman.
- Nisbett, R. E. (2003). *The geography of thought: How Asians and Westerners think differently ... and why*, NY: Free Press.
- O'Mara, E. M., Gaetner, L., Sedikides, C., Zhou, X., & Liu, Y. (2012). A longitudinal-experimental test of the panculturality of self-enhancement: Self-enhancement promotes psychological well-being both in the west and the east.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6, 157-163
- Paulhus, D. L. (1984). Two-component models of socially desirable respond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598-609.
- Pualengco, R. P., Chiu, C. Y., & Kim, Y. H.(2009). Cultural variations in preemptive effort downplaying and effects on self-evaluation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 12-19.
- Rothbart, M., & Park, B. (1986). On the confirmability and disconfirmability of trait concep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131-142.
- Ryff, C., Lee, Y., & Na, K. (1995). *Through the lens of culture: Psychological well-being at midlif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Wisconsin.
- Schmutte, D. M., Lee, Y. H., & Ryff, C. D. (1995). *Reflections on parenthood: A cultural perspective*. 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
- Sears, D. O. (1983). The person-positivity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233-250.
- Sedikides, C., & Gebauer, J. E. (2010). Religiosity as self-enhancement: A meta-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socially desirable responding and religios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4, 17-36.
- Sedikides, C., Gaertner, L., & Toguchi, Y. (2003). Pancultural self-enhanc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60-79.
- Sedikides, C., Gaertner, L., & Toguchi, Y. (2003). Pancultural self-enhanc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60-70.
- Sedikides, C., Gaertner, L., & Vevea, J. L. (2005). Pancultural self-enhancement reloaded: A meta-analytic reply to Heine(2005).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 539-551.
- Svenson, O. (1981). Are we all less risky and more skillful than our fellow drivers? *Acta Psychologica*, 47, 143-148.
- Taylor, S. E., & Brown, J. D. (1988). Illusion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 193-210.
- White, K., & Lehman, D. R. (2005). Culture and social comparison seeking: The role of self-moti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 232-242.
- Yeh, C. (1995). *A cultural perspective on interdependence in self and morality: A Japan-US comparison*. Unpublished manuscript. Stanford University.
- Yoshida, T., Kojo, K., & Kaku, H. (1982).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elf-presentation in children. *Japanes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0, 120-127.

1 차원고접수 : 2014. 06. 14.

수정원고접수 : 2014. 08. 20.

최종게재결정 : 2014. 08. 29.



## Condition and Mechanism of Cultural Differences in the Better-Than-Average Effect

**Jongtaek Lee**

Dongyang Mirae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when cultural differences in the better-than-average effect (the tendency to view oneself as better than average) would vary with trait desirability and why the differences would occur. The researcher used Koreans and Westerners in Korea as representatives of East Asian and Western cultures, respectively. In Study 1, the author found that the magnitude of cultural difference in the better-than-average effect varied between Westerners and Koreans. While Korean participants failed to exhibit the better-than-average effect for any negative trait in 2010 year data, they showed the effect for negative traits in 2014 year data. In contrast, Westerners tended to display the better-than-average effect more than Koreans, and cultural difference was greater for negative traits than for positive traits. In Study 2 to pin down the underlying mechanism that gives rise to cultural differences, it was found that the other-enhancing orientation of the modesty norm influenced the cross-cultural difference. Westerners as well as Koreans did not show the better-than-average effect under the enhancement of the modesty norm. The findings indicate that Koreans of East Asian culture motivate to correct their own defects and improve themselves.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nd suggestions of the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Better-than-average effect, Cultural differences, Modesty norm, Negative traits, Self-improvement motive